佛具의 디자인이 바뀐다

〈불구〉

청년불자기업 (주)마인드디자인 고급수행용품전문브랜드 '마인드리추얼' 런칭

2018.1.3.~12 전통공예숍 일상여백(청담본점)서 런칭 전시 열어



현대적 디자인의 향완



가정식 미니불단



다구 세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년불자기업 (주)마인드디자인이 2018년 1월 3일(수)부터 19일(금)까지 전통공예숍 일상여백(청담본점)에서 2018년 새해 제안전 〈Retual-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의식〉을 열고 고급수행용품전문브랜드 '마인드리추얼'을 런칭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주)마인드디자인은 불구(佛具)를 포함한 수행용품을 현대의 쓸모에 맞게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다양한 공예인들이 각기 다른 기술로 제작한 새로운 수행용품을 선보인다.

"무릇 좋은 문화란 시대를 초월하게 마련입니다. 재빨리 소비되는 문화가 주목받는 오늘날, 오래오래 이어 내려온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통공예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를 이끄는 사회적 기업 '마인드디자인'입니다."

지난 8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주)디자인마인드는 런칭에 앞서 마련된 전시를 통해 현대적 미감을 살린 주얼리, 향완, 가정식 미니불단, 명상종 등의 고급 불구와 명상수행에 쓰이는 다구, 초, 향 및 관련 공예품까지 선보인다.

기존의 수행용품들은 현대적 미감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마인드리추얼'은 수행이 특정한 수행자나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존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현대적 디자인의 고급 수행용품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괄 디렉터 김민지 대표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수행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의미는 '힐링'을 넘어선, 생활이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는 불교 수행을 이러한 면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수행은 일상에서 언제든지 영위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늘 깨어있다면 순간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는 눈 역시 빠르게 바뀌게 된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수행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주)마인드디자인은 문화재청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전통문화 소비의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이다.

일상 속에서 잊히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한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전문브랜드로 선보이는 '마인드리추얼' 역시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과 철학적 가치를 재해석해 새로운 모습의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리추얼 문화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주)마인드디자인은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전통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벤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교박람회가 그것이다. (주)마인드디자인은 박람회를 통해 불교 관련 업체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가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중국 지점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마인드디자인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난해 3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식문화 사진 · 영상 공모전…1월 19일까지

2018. 2. 3까지 청와대 사랑채서 전시

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 상금 2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와 함께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올해 초 끝난 '한식문화 미술대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으로,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영상이며 한식과 한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이메일(hansikart2017@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소개와 접수 방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한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나 새로운 경험들, 예를 들어 독특한 전통 한식문화, 각 지방의 특이한 전통 한식문화, 외국에서 만난 한식문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한식문화, 한식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 한식의 문화적 향유를 내포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작업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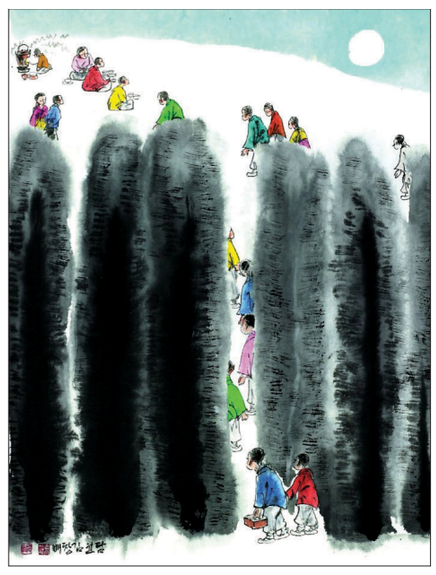
구도의 여정, 선화(禪畵)를 만난다

'한국 단원 담원 명가' 展

2018. 1. 10~16일

서울 인사동 한국 미술관

대만 거장 리샤오쿤 등 참가



김창배 作 '달빛차회'

한국 선화의 국제화를 위한 전시가 마련된다. 서예문인화와 한국미술관은 제6회 '한국 단원 담원 명가, 국제선화미술대전'을 2018년 1월 10일(수)부터 1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단원가 담원명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덕목을 갖추고 자비심과 사랑을 갖춘 예술가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참다운 예술가는 창작의 기교뿐만 아니라 신념을 지닌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한국 단원 담원 명가' 전과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선화미술대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 선화의 국제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단원 김홍도의 화맥을 잇는 담원 김창배 화가를 비롯해 선화가 90여 명이 참가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의 화가뿐만 아니라 대만 선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리샤오쿤을 비롯해 일본, 미국의 화가들도 참여했다.

이번 전시의 지도교수인 담원 김창배(한국선화협회 회장) 화가는 단원가의 후손으로서 김홍도에서 유숙, 장승업, 김응원, 정대유, 조석진, 안중식, 김은호, 금추 이남호로 이어지는 화맥을 잇고, 한국미술협회에 수묵화를 설치하는 등 한국의 선화 · 수묵화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선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초심을 갖고, 진솔한 수행자의 자세로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원 담원 명가의 화가들이 걸어야 할 구도의 여정입니다."며 "선화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넘어선 수행의 길이다."고 선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국제선화미술대전을 국제적인 선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자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 구 지 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ACE 잘 가르치는 대학

세상을 움직이는 밝은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전국 15위(대구경북권 2위) 기록
비수도권 사립대 전국 9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국 18위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사업) 8년 연속 선정(2011~2018)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2016~2020)

• 2018학년도 동국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 •과학기술대학, 상경대학 융합학부제 신설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참사람'인재 양성

• 동국엘리트장학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 6(토) 09:00 ~ 2018. 1. 9(화) 18:00

문의처 054.770.2031-4 http://ipsi.dongguk.ac.kr